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 사양관리

김 명 주



(주)카길코리아 이사

송아지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아지가 갖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번식우 농가의 목적은 본인이 생산한 송아지가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송아지 판매를 한번만 하고 만다 하더라도 그래야 하겠지만, 만약 번식우 사업을 계속 하려 한다면, 시장에 팔려간 송아지가 출하 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송아지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한다.

- ▶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 늘 송아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특히 설사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철칙으로 한다.
- ▶ 충분한 운동을 시킨다.
 - 네 다리가 튼튼하고, 쪽 뺨은 듯한 송아지를 만든다.
- ▶ 체폭(體幅)이 있고 배통이 큰 송아지를 만든다.
 - 조사료 급여시기, 양 및 농후사료와의 비율에 유의한다.

1. 송아지의 질병

송아지는 초유를 아무리 빨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여기서는 송아지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사와 감기(호흡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설사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송아지는 설사에 걸리기도 쉽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감염에 의한 것과 사료 등 먹이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보다도 사양관리 불량에 의한 설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대책으로서는 깔짚 등이 충분한, 건조, 청결, 따뜻한, 송아지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예방하도록 한다.

■ 선충, 콕시듐에 의한 감염

최근 톱밥을 깔짚으로 사용하는 우사가 대부분이다. 기온이 높은 6~10월에 걸쳐서 유두분선충 등의 증식과 감염에 의한 설사가 염려된다. 10일 이내에 깔짚을 교환하여 예방하도록 한다.

또 콕시듐 원충은 생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송아지에 감염. 발증하여 심한 설사를 일으킨다.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꼭 분변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해야 함은 물론, 어미소를 포함한 전 우군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화 불량

생후 3개월까지의 송아지 위장은 아직 충분히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 시기에 어미 사료나 불결한 먹이를 먹게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위장에 궤양을 만들며 설사를 하게된다.

송아지사료와 물은 따로따로 놓아주고, 어미사료나 불결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최근 다두사육에서 설사가 상재화 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 그 원인이 단독이 아니라 호흡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설사에 의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번식우 사육농가라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현재 필자가 현장에 소개하고 있는 송아지 바로 분리법은 송아지 설사 예방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므로, 번식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송아지 설사 예방의 포인트

1. 분만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초유를 먹여 어미부터의 면역을 활용한다.
2. 건조한 바닥, 보온으로 체력증강과 스트레스 경감으로 면역능력을 높인다.
3. 감염원(세균)을 적게한다.

▶ 송아지 설사 치료의 포인트

1. 어미와 함께 우사에 수용하고 동거송아지는 예방적 치료를 위하여 항생물질을 투여한다.
2. 전해질등은 몇회 나누어 투여하고,
3. 지사제의 초기 사용은 신중히
경: 2ℓ, 3회/일 중: 3ℓ, 4-5회/일 중: 4ℓ, 6회/일
4. 방목등은 체력이 충분히 회복한 후

2) 감기

송아지가 걸리기 쉬운 병중에 또 하나는 감기, 즉 호흡기병이다. 원인은 공기전염에 의한 유행성과

코, 기관 점막에 부착한 세균, 바이러스의 침해를 받는 것 등이 있다. 대책은 설사와 거의 같지만, 송아지는 바닥과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먼지, 암모니아등에 자극을 받기 쉬우므로, 축사내 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설사, 감기 모두 빨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에 걸린 소는 격리하여 다른 송아지에 감염시키는 것을 막도록 한다.

▶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운 송아지

1. 면역기능, 방어기능이 약해진 송아지
2. 스트레스 받은 송아지
3. 사육환경이 나쁜 송아지
4. 영양 상태가 나쁜 송아지
5. 호흡기도의 점액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긴 송아지

2. 송아지의 운동과 조교

방목장의 경우, 송아지는 10일령이 되면 어미소와 함께 축사밖으로 나온다. 야외의 청결한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 논다. 어미와 떨어져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배우기도 한다. 이 시기의 운동은 장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같은 월령의 송아지를 동시에 방목하도록 한다. 방목장이 없을 때는 송아지만이라도 축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사의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이던지 흥미를 갖으며, 아무거나, 더러운 것도 먹기 때문에 방목장, 축사 주위 등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송아지 전용 급수통과 건초를 준비하여 포식시키도록 한다.

■ 매어 놓기

송아지의 일상관리에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송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규칙생활(조교)을 시키는 것이다. 소의 강제 운동에는 끄는 운동과 쫓는 운동이 있는데,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매어놓기 운동이다. 말목등에 코뚜레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 1-2시간(처음 10분부터 시작) 그 상태로 매어 놓는 방법이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차려”의 자세이다. 어깨(체고를 측정하는 부위)와 귀의 높이를 수평이 되도록 코를 들어올려 고정된 모양이다. 그 동안 우체에 브릿시를 한다. 어느 부위를 끊어주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잘 따르는 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이다.

3. 배통 만들기의 포인트

송아지는 매일 발육하지만, 그 발육은 일정하지 않아 체고가 급하게 늘어나거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결국 송아지의 체형은 발육상태에 맞추어 변화하기는 하지만, 장래 먹성이 좋고 위장이 강한 송아지로 키우기 위한 사양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 생후 3개월, 장래가 결정된다.

▶ 성별, 월령에 맞는 관리

1) 송아지의 발육과 사료

시장출하가 가까워져 갑자기 사양관리를 바꾸어도 어릴 때부터 바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좋은 송아지가 되지 않습니다. 체중의 증가는, 생후 60일까지는 거의 모유에 영향받습니다.

유량이 많은 어미의 송아지의 체중은 생후 1개월에서 2배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송아지에 필

요한 영양은 모유로 충분하더라도, 7일령이 되면 갈짚이나 어미사료를 먹으려 한다. 이것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1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다. 제1위는 생후 3개월에 완성된다.

그 후 섭취량도 월령과 함께 증가하여 제1위가 커져가게 된다. 제1위가 커지는 모양은 복위(腹圍)로 알 수 있다. 흉위(胸圍)와 복위(腹圍, 마지막 늑골의 위)의 차이가 15cm 이상이면 충분하다. 건초라면 1일 1kg 이상은 먹을 수 있게되어,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강한 위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표 1] 우체 및 조직의 발육 순서

발육단계	1	2	3	4
체부위	머리	목, 사지	가슴	허리
조직	뇌(신경)	골격	근육	지방
골격	관골	배, 경골	대퇴골	골반
지방	신장	근간	피하	근육내

[표 2] 반추위의 구성비율(%)

	주령						
	0	4	8	12	16	20~26	34~38
제 1,2위	38	52	60	64	67	64	64
제 3위	13	12	13	14	18	22	25
제 4위	49	36	27	22	15	14	11

2) 암수, 월령에 따른 급여법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암수, 개체차에 의한 강약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한다. 암수를 혼사하여 사료를 급여하면, 농후사료는 암컷이 먼저 많이 먹고 나머지를 수컷이 먹게된다. 그러면 수컷은 사료가 부족하여 다소 마르게되고 암컷은 지나치게 살이 붙어 체고가 늘어나지 못하여 양측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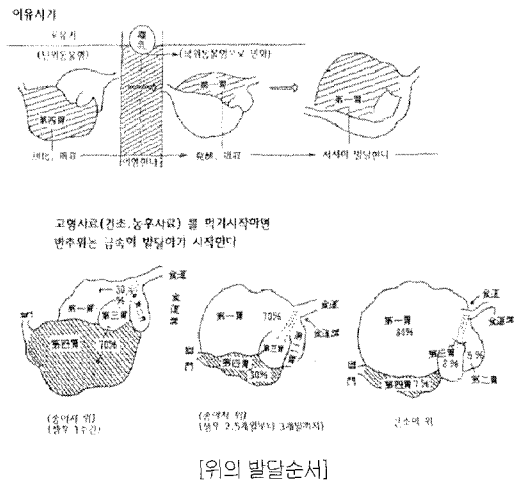
해서는 암수 분리가 최선의 방법이다. 좁은 장소에서는 사료급여시 만이라도 송아지를 붙들어 매어 놓고 월령에 맞는 사료급여를 하는 편이 좋다.

3) 이유 시기

이유는 통상 5-6개월령에 걸쳐서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느냐는 것이다. 목표는 흉위와 복위의 차이가 15cm 이상이다. 무리한 이유는 위장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서서히 식욕, 변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유를 하도록 한다.

송아지 육성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던 것을 정리해 보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자는 철저히 소의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사양관리의 실패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위의 발달순서]